

# 이연호 칼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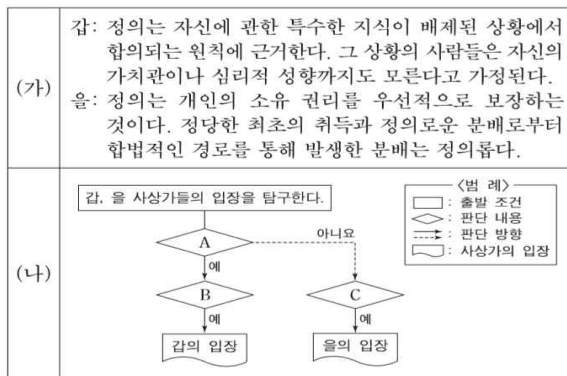
## <윤리와 사상> 고난이도 문항 접근법

ATOZ 윤리와 사상 저자 이연호

반갑습니다. ATOZ 윤리와 사상의 저자 이연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칼럼으로 찾아뵙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올해 수능 19번 문제의 경악스러운 정답률을 보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직과 롤스에 대해 출제된 19번 문제의 오답률은 80% 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근 윤리와 사상 영역 최악의 정답률을 선보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이유보다 노직의 @선지가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지에 대해서 수험생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했을지에 대해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칼럼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제 칼럼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TOZ 윤리와 사상의 내용과 이연호 칼럼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EBS”내용을 토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화적인 내용이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교수님들의 논문 및 전공 서적에서 추출한 후 서술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들은 철저히 EBS 내용, 교과서 내용에서만 추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교과서나 EBS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안 봤으니, 당신들은 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후적인 해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교과서와 EBS의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A: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 ㄴ. B: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가?
  - ㄷ. B: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 ㄹ. C: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우선 갑 사상가는 롤스임을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무지의 베일)”는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을 사상가는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 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노직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선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풀이를 위해 롤스의 전반적인 사상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개념은 EBS 및 교과서의 내용이므로 절대로 생경하게 느껴지시면 안 되는, ‘기본중의 기본’ 내용입니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이론”에서 가정하는 인간관은 칸트의 인간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며, 자유롭습니다. 또, 공리주의와 달리 계약을 통해 정의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공정으로서의 이론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건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이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맺어진 원칙들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동정심, 질투심 등을 갖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했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이기만한 존재라면 당연히 정의로운 원칙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합의하여 도출한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제1원칙) :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 이 ‘최대한’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선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 최대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함)과 기회균등의 원칙(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함)이 지켜지는 한에서 허용된다.

그렇다면, ㉠선지( ㉠ . A : 사회적 지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는 당연히 틀렸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지를 틀리신 분들은 롤스의 개념을 대충 이해하셨을 가능성이 큼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서 전개되는 원칙 중 하나가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그 자체만으로 정답에서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는 적절한 내용입니다.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등 분배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선지를 잘못 판단하신 학생은 더욱 반성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올해 EBS 연계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2016년 출시된 수능특강 14단원 1번 문제 3번 선지에 대해 EBS는 이렇게 해설한 바 있습니다.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기본적 자유는 복지 향상이라는 이유도로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내용은 ATOZ 윤리와 사상에도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선지 또한 적절한 내용입니다. 제2원칙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바야흐로 ㉣선지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노직의 기본 원리와, 문제 풀이 접근법에 나누어 2가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험생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선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롤스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와 EBS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수험생이시라면 절대 헛갈려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노직은 우선 정의를 개인의 권리 보호와 존중으로 보았습니다. 롤스의 정의가 재분배 문제에 집중했다면, 노직은 소유 권리에 관심을 둔 것이죠.

노직은 자기 소유권 원칙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유물을 얻었다면 그 것을 자유롭게 양도 및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소유 권리’는 EBS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개념입니다. EBS는 이에 대해 “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제가 서술한 ‘소유 권리’ 내용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직은 정의의 세 가지 원칙(2016 수능특강 : 170P)을 들었습니다.

제1원칙 :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 어떤 개인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소유 상태는 정당함

→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어떤 사물을 사유화해야 함

제2원칙 :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받은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짐

→ 교환이나 증여, 상속 등에서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 상태는 정당함

제3원칙 : 제1원칙과 제2원칙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으며,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함(노직은 이 ‘부정의를 바로잡고, 교정을 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이상 노직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 추가적인 개념들이 있지만, ⊕선지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노직 :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위에서 “소유 권리”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제3원칙을 통해 ‘소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1원칙’을 만족시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 권리”를 가질 때에는 “제1원칙”을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EBS에서 서술한 “제 1원칙”에 대해 위의 내용을 다시 써보자면

제1원칙 :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 어떤 개인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소유 상태는 정당함

→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어떤 사물을 사유화해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최초 취득의 조건으로서 EBS는 2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두 번째로, “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사유 재산으로 삼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㉔선지는 어떤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나요? 두 번째 조건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㉔선지의 어떠한 부분에도 자기 노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과한 추론이라고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제 머리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내용인가요? 아니요. 평가원에서 발표한 명실상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교재”의 내용입니다. 이 개념은 수험생이라면 “필연적으로” 보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한 방식이었고, 지금부터는 평가원이 수험생들을 “속여 왔던” 방식으로서 19번 문항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 댓글이나 결의 수험생에게 물어본 결과, 대체로 ㉔선지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당연히 맞는 선지로 체크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살펴보죠.

### 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분명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모두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그의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 때문에 그는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

- ① 이성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것이라고 본다.
- ② 도덕 법칙의 보편성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 ③ 모든 준칙은 보편성을 가지며 도덕 법칙의 예외는 없다고 본다.
- ④ 선한 의지와 무관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네. 당연히 익숙하셔야 합니다. 1번부터 5번선지까지 왜 오답인지, 왜 정답인지 “당연히”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당해 6평 오답률 3위로서 칸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정답이 1번이고 왜 다른 선지가 오답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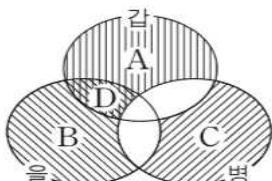
EBS 통계에 따르면 ③번선지에 약 2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속았다는 것이죠. ③번선지가 틀린 이유는 뭔가요? 바로 “모든”이라는 형용사 때문입니다. 만약에 ③번선지가 “도덕 법칙의 예외는 없다고 본다”였다면 이 선지는 필연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준칙이 보편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칙 중에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정한, 즉 이성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준칙이 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ATOZ 윤리와 사상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EBS에도 서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평가원의 낚시 수법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라는 내용을 통해서 6평, 수능 모두 어마어마한 오답을 이끌어낸 셈이죠. 위와 같은 예시를 한 문제 더 들어보겠습니다.

밑의 문제는 <생활과 윤리>문제이지만, 평가원의 낚시 수법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문제이기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 기계에 불과하다.</p> <p>을: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p> <p>병: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ㄱ. A: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ㄴ. B: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ㄷ. C: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ㄹ. D: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옛날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올해 생활과 윤리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약 80%에 육박한 재앙에 가까운 문제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지는 ㉠선지입니다. ‘모두’와 흡사한 표현이 또 다시 등장했네요. 여기서는 ‘어떠한’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9평이 끝난 후 많은 수험생들이 오르비에 ㉠선지를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틀린 내용 아니냐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수험생들은 갑 사상가가 데카르트이며, 병 사상가가 레오폴드임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했습니다만, 을 사상가인 레건에 대해서 판단의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건은

제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욕구, 지각,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가져야만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어떠한 생명체”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당연히 포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건의 입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현혹한 셈입니다.

“모든”을 이용한 낚시 방법은 내년에는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점을 명심하지 않았기에 이번 수능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반성하셔야 할 점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통해 평가원에서 “미리” 경고한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로 한 번 수험생들을 낚았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제발 조심 좀 하시고, 속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에 가깝게 나타난 이 오답률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조금 더 꼼꼼히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ATOZ 윤리와 사상>의 저자 이연호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